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가정의 달
 아버지 주일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태복음 15:21-28 (신약 26쪽)

"믿음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사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결단의 기도) (통일찬송 304장)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헌 구은 강 / 최내권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생면 드리니 (4절)

삶과 세상 속으로

*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통일찬송 234장)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2:12-36 / 김성배 목사

"흡니와 비느하스"

삶과 신앙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구요?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는 언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자녀양육을 강의하면서 부모들에게 질문을 한다.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봅시다. 그때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상처받고, 화가 났었나요? 어렸을 때 우리를 화나게 했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각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와 비교할 때,
딸이라는 이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학업에 지나친 압박을 가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길 대신 부모의 요구를 따라야만 했을 때,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로 큰 부담을 안겨줄 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부모가 싸울 때’였다.

자녀가 가장 크게 상처 받고 화가 나고 낙심되는 이유는 바로 부부싸움이었다.

자녀는 부모가 싸울 때 상처 받는다. 어디 자녀뿐이겠는가. 부부싸움은 당사자인 아내와 남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했다. 그 말은 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흔적을 알 수 없듯이 싸우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흔적이 남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그래서 부부는 싸우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부부는 싸워도 된다는지 부부싸움은 당연하다든지 또는 부부는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있다. 그것이 정답이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싸우면서 세월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싸우지 말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는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진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홍장빈, 박현숙



한 주간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교회 를 방문 하신 분들을 하나님 의 사랑 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헌기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 가정의 달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아버지 주일 / Mother's Day** 받은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2. **Oikos 친교**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점심친교입니다. **Oikos 모임** 다음 주일(21일)에 가집니다.
3.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4. **한 가족 예배** 5월 28일 성령강림 주일에는 **Mother's Day**를 기념하며, 6월 4일은 **졸업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5. **졸업 Banquet** High School을 졸업하는 자녀들을 축하하는 감사행사입니다. 일시: 5/26(금) / New Life Church
6. **야외예배** 6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7. **금요 찬양예배**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을 위해 예배시간을 이번 금요일(5/19)부터 8시로 조정합니다.

5월 사역

성장/성숙 주간(7-13) Mother's Day(14)

소금/빛된 주간(14-20) 섬김 리더 모임(21) 선교 주간(21-27)

졸업 Banquet(5/26, 금) 선교 주일/사역 친교(28)

졸업예배 (6/4)

한국 방문

김신실 집사 / 최선윤 집사

생일 축하 합니다

구민(8) Jacob Kim (7) 구민우(16) 최내권(20)



권함 축하

박다현 & James Park
5/20 5:00pm
Lake Villa

말씀 개요 마태복음 15:21-28
믿음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사랑

기도제목

가나안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의 냉대와 모욕에 그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입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칭찬받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간구하자

성경 요약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을 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악한 귀신에 붙잡힌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애절한 간구를 외면하셨다. 심지어 개로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도 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여인은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자신을 더욱 낮추었다.

그제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녀를 냉대하며 모욕하셨을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녀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키셨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모성애가 믿음으로 표현됐던 것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을 고쳐줄 예수님, 메시아께 모든 것을 걸었다. 모성애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 칭찬과 함께 딸도 구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나? 비뿔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는 모성애, 부성애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녀를 사랑하되,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자.

-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훈련하도록
- 섬기는 목회자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위해
-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 졸업/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학업과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다현(박진성 집사 장녀)의 결혼을 위해
-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5월14일 박진성 집사
21일 김윤경 사모
28일 구민 집사
6월 4일 최내권 집사

주일 헌금 위원 5월 14일 구은강 / 최내권 집사
21일 최내권 / 구은강 집사
28일 유병하 / 오정은 집사
6월 4일 오정은 / 유병하 집사

주일 안내 5월 구민 집사
6월 최내권 집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